2006년 뜬별 진별

다사다난했던 한해, 각계에서 세계의 주목을 끈 인물이 나타났다. 또 세계 속에서 빛난 한국인이 있는가 하면, 한국 속에서 빛난 광주·전남인도 있었다. 반대로 우리 곁을 떠난 인물과 명예나 권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유명인도 있었다. 광주일보의 시선으로 올 한해 명멸의 인물을 살펴본다.

유엔 수장 된 반기문 '최고의 스타'

한명숙 총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정진석 추기경 | 박태환 | 김연아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 아베 신조 총리 | 워런 버핏 회장

한국 첫 여성총리 한명숙…정진석 두번째 추기경 임명
김연아 피겨 여왕 등극·박태환 아시안게임 MVP
日 아베 새총리로…워런 버핏 회장 '아름다운 기부'

뜬 별

◇ 국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의 수장(首長)으로 당선됐다. 2004년 1월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돼 총 1천29일 동안 자리를 지켜 지난 80년대 이후 최장수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외유내강'형으로 알려진 그는 4차례의 유엔 안보리 예비 선거에서 연거푸 1등을 차지했고 11월 유엔 총회에서 인준받았다.

▲**한명숙 총리**=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 여성으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 (一人之下萬人之上)' 이라는 국무총리직 에 올랐다. 여성운동권의 '대모' 로서 남편(박성준 성 공회대 교수)을 13년간 옥바라지했던 고난의 인생역정도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았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올해 최대 M&A(인수·합병) 매물인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해 그룹의 위상을 드높이며 재계 서열 11위에서 8위로 단숨에 3단계를 뛰어 올랐다. 박 회장은 2007년에는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하며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정진석 추기경**=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가 2월22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원래 발명가가 꿈이었던 그는 1950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지만 문명의 이기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현실을 본 뒤 사제의 길을 선택했다.

▲**박태환**=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 경영 자유형 200m와 400m, 1,500m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수영의 최강자로 떠오른 '마린보이'. 날이 갈수록 기록을 단축하고 있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메달이 기대되는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연아**=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성인무대 대뷔 첫해에 세계 제1인자로 떠오른 '피겨 요정'. 피겨 선수로는 이상적인 몸매(신장 161㎝-체중 40㎏)에 높은 점프력을 자랑하는 김연아는 주니어 무대에서 일본의 동갑내기 아사다 마오와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꾸준히 실력을 키웠다.

▲**신지애**=2006 한국여자프로골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신인상·상금왕·다승왕·최저타수상 등을 휩쓸며 사상 첫 5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성 골퍼. 함평골프고 출신인 신 선수는 올해 투어에 데뷔, 3승을 획득하는가 하면 사상 처음으로 상금액 3억원(3억7천405만원)시대를 열었다. 또한 라운드당 평균타수도 69.72타로 여자 골프 최초의 60대 타수를 기록했다.

◇ 국제

▲**배럭 오바마**=2008 미국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한 뒤 '록스타'처럼 인기 폭발하고 있는 일리노이주 출신의 유일한 현역 흑인 상원의원. 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쟁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뒤를 바짝 따라붙으면서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베 신조**=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하며 새 총리에 올랐다. '강한 일본'을 지향하며 평화헌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對北) 강경 대응을 표방. 그러나 집권 초반부터 인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워런 버핏**=미국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가치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그는 6월 자신의 재산 440억달중 370억달러를 빌 게이츠 회장이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세계를 감동시켰다.

▲**무하마드 유누스**=빈곤퇴치 모델인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 사업을 성공시킨 방글라데시 학자. 그라민 은행과 함께 올해 노벨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수상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의 책임을 결합시켜 빈민에게 담보없이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빈곤탈출 지원에 기여하고 농촌경제의 얼굴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 |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 극작가 차범석 | 프로레슬러 김일 | 홍남순 변호사 | 고이즈미 | 카스트로

최규하 전 대통령·박치기 왕 김 일·백남준씨 타계
피노체트·밀로셰비치도… 카스트로·고이즈미 '퇴장'

진 별

◇ 국내

▲**최규하 전 대통령**=지난 10월 12·12 쿠데타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타계한 10대 대통령. 향년 87세. 뛰어난 외교관 출신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8개월 만에 사임, 최단명 대통령으로 남게됐다.

▲**정인영 한라건설 명예회장**='재계의 부도옹(不倒翁)' 등으로 불렸던 정 명예회장이 86세를 일기로 7월20일 별세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첫째 동생인 고인은 1962년 독립, 한라건설·한라자원·만도기계·인천조선·한라시멘트 등 한라그룹을 이끌었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지난 1월 7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TV화면을 활용한 다양한 비디오설치 작업을 했다.

▲**극작가 차범석**=목포 출신으로 지난 6월 82세를 일기로 타계한 그는 한국 연극계의 거목. 1955년 '밀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극작의 길로 들어섰다.

▲**프로레슬러 김일**=고흥 출신으로 지난 10월 7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링에서 호쾌한 박치기로 전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했던 전설적 프로레슬러다.

▲**홍남순 변호사**=1970~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대부. 지난 10월 94세로 타계했다.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광주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며 양심수들을 위해 60건 이상의 무료 변론을 담당했다.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지난 10월 별세했다. 향년 67세. 김 전 회장은 1962년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에 입사한 뒤 1975년 전남일보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김남중(1987년 별세) 전 전남일보 회장의 뒤를 이어 전남일보와 전일방송 사장, 광주일보 회장을 역임했다.

◇ 국제

▲**피델 카스트로**=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내장 출혈 이후 동생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암수술 후 재기를 노리고 있으나 공식 행사에 전혀 등장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라'가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칠레 군부 독재자.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로 12월10일 사망했다. 권력에서 물러난 뒤 인권탄압과 부패혐의로 여러차례 가택연금되는 등 수난을 당했으나 단죄를 피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전 일본 총리. 5년 여간 일본 총리를 지낸 뒤 9월 퇴진하고 정치에서 물러났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인기 총리로 기록됐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 등과 외교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전 유고 연방 대통령. 1990년대 악명 높은 '인종청소'로 발칸반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독재자로 지난 3월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재판을 받던 중 옥중 사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